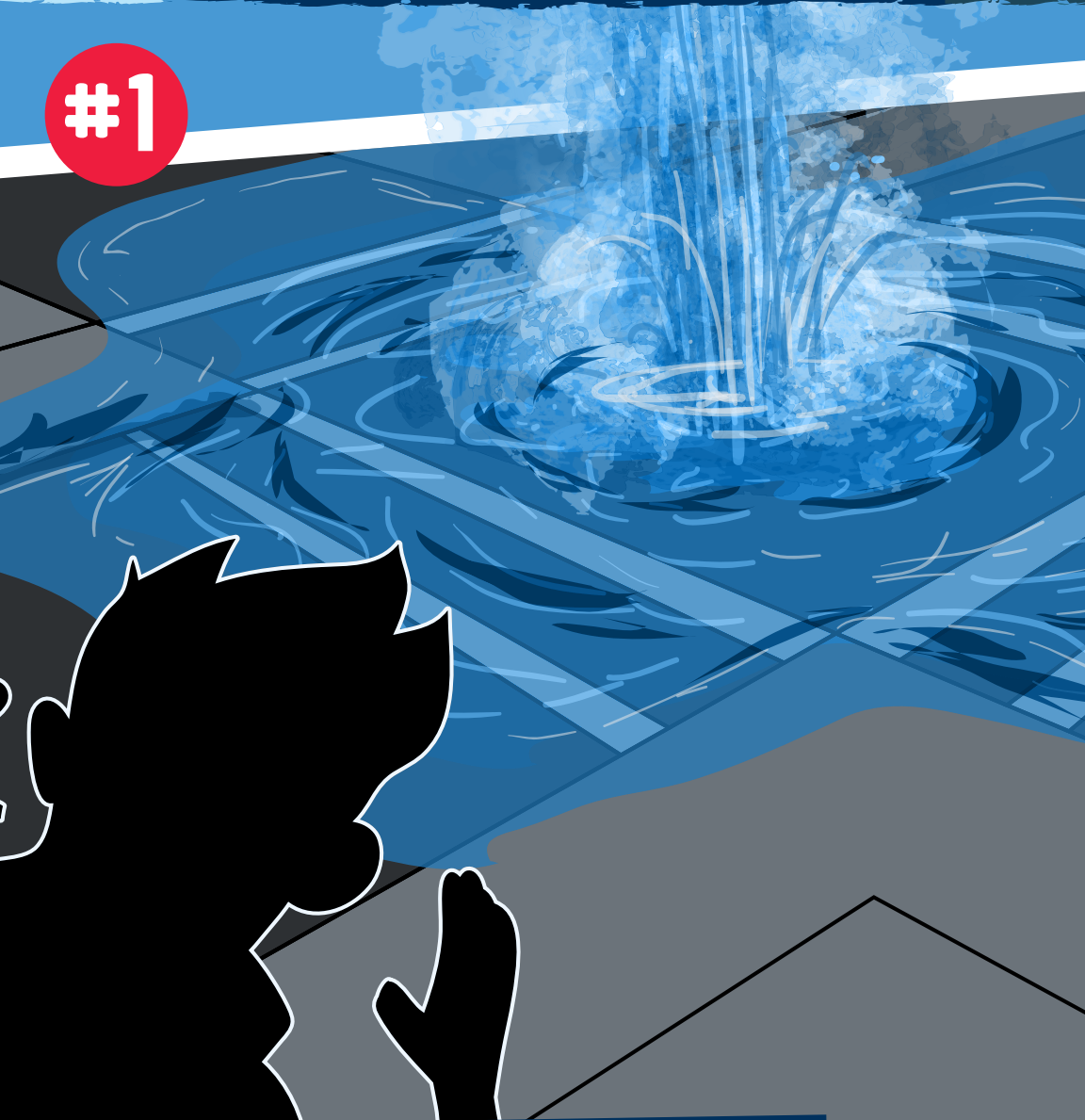




자신만의 준비 대책 선택



#1



횡단보도에 상어가 나타났다

준비된 뉴욕

자신만의
준비 대책 선택



©2013 공익 광고 협의회 및 뉴욕시 재난 관리국
(Ad Council and the New York City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글 및 디자인: 교육 재단 (The Education Center, LLC)

횡단보도에 상어가 나타났다

벤은 하교 후 픽업 농구 게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 벤은 하루 중 대부분을 책상에 앉아 보냈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는 코트를 누비면서 경기를 즐기는 것은 벤에게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셔츠를 잡아 목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어디로 갈거야?”

“여동생 방과 후 수업 끝나고 데리러 가기 전에 집에 가서 샤워할 거야”라고 벤은 농구 코트에서 나가는 친구 마이키에게 말했습니다.

벤은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아파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자, 벤은 도로에 시에서 나온 트럭, 유틸리티 차량, 오렌지색 원뿔형 표지, 나무로 된 안전 경계표시가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 순찰차가 안전 경계표지 중 하나 뒤에 주차되어 있었고, 계속해서 라이트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무섭고, 뭔가 뚫고 나오는 듯한 썩 하는 소리가 이 블록 전체를 도시 속 한 곳이 아닌 강가에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벤은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근처 건물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교차로 중간에서, 아파트 진입로 쪽으로 도로에서 끊어오르는 것처럼 물이 팔팔 넘쳐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은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봐! 거기 학생!”

벤이 아래를 내려다 보니, 워키토키가 유난히 돋보이는 녹색 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사니? 나는 커뮤니티 비상 사태 대응팀 대원이야.” 무언가 계속 말이 흘러나오는 워키토키를 가진 그 남자가 자신의 ID를 들어 올렸습니다. “봐, 여기 ‘CERT’라고 쓰여있지. 내 이름은 오메라야.”

“근데 여긴 무슨 일이 생긴거죠?” 벤이 물었습니다.



“수도관이 파열되고, 전기가 끊겼어.”라고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대피 중이야. 넌 이름이 뭐니?”

“저는 벤이에요. 저기 살아요.” 벤은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가리켰습니다.

“좋아, 벤. 내가 도와줄게. 가족들이 너를 찾으려 올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니? 아니면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줄까?”

**벤이 친구 집으로 간다고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7페이지로
가십시오.**

**벤이 자신의 아파트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6페이지로
가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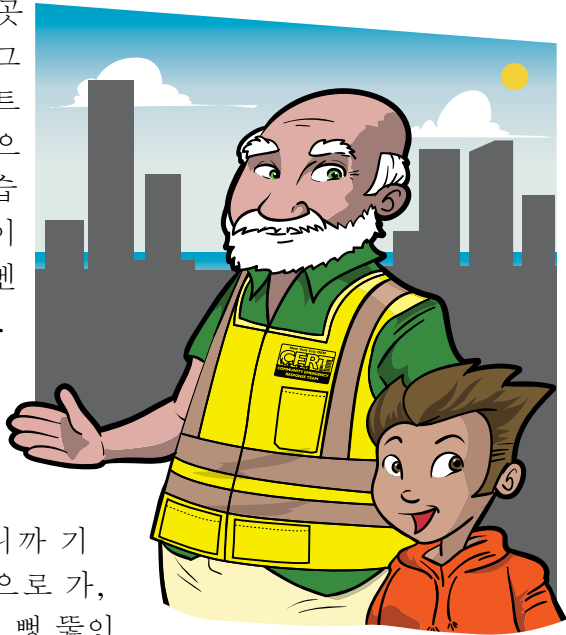
벤은 아파트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집으로 올라가야 해요.” 벤이 오메라씨에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 있어요. 냉장고에 붙여 놓은 비상 시 카드에 가족 집합 장소가 적혀있어요. 그리고 비상용 백도 가지고 나와야 해요.”

오메라씨가 미소를 짓습니다. “대단하구나, 벤. 아마 오늘 밤은 집에서 머물 수 없을 것 같다. 비상용 백을 가지고 가는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아파트 뒷문까지 데려다 줄게. 그러면 집으로 올라가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오라.”

벤과 오메라씨는 함께 경계표지를 지나 클립보드와 무전기를 들고 서 있는 경찰관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은 그 경찰관에게 이름과 아파트 호수를 말하고, 보호를 받으며 아파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CERT 구조요원이 벤이 사는 아파트 층까지 벤과 함께 올라와 주었습니다.

벤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도로에서 정신 없는 상황 뒤에 안전하고 익숙한 곳에 오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창문으로 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땀 뚫린



구멍이 보였고, 도로로 하얀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도, 비상 대책반들이 여기저기서 분주히 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마도, 잠깐은 여기서 지켜봐도 될거야라고 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벤은 또한 비상용 백을 챙기고, 냉장고에서 가족들의 비상 시 집합 장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벤이 계속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9페이지로 가십시오.

벤이 비상용 백을 가지고 가족 집합 장소로 간다고 생각하면 10페이지로 가십시오.

벤은 친구 집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친구 집으로 가야겠어요.” 벤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그 친구 집에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끼리 정해 놓은 비상 시 집합 장소가 있니? 가족들이 네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지?”

“식구들은 내가 마르쿠스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걸 알거예요.”라고 벤은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지는 않았습니 다. 벤은 마르쿠스 집에 가서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굴착기의 후진 경고음이 도로 가득 울렸습니다. 굴착기를 보고 있던, 오메라씨가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너는 가족들하고 정해 놓은 안전 장소로 가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물 때문에 건물 출입이 통제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다.”

“걱정마세요.” 벤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가볼게요.”

재빨리 헤드폰을 다시 끼고, 벤은 마르쿠스의 집으로 걸어갔습니 다. 벤과 마르쿠스는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다시 농구를 하러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르쿠스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벤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야, 너 왜 여기 왔어?” 마르쿠스가 현관문을 열며 물어보았습니다.

“달리 갈 곳이 없었어. 네가 직접 그 도로 상황을 봐야 했는데. 정말 끔찍했어!”

“왜? 무슨 일인데?” 마르쿠스가 벤이 들어오도록 옆으로 비키며 물었습니다.

“수도관이 터지고, 전기가 나갔어.” 벤은 문 안쪽에 가방을 내려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기 오기로 생각했지. 괜찮죠?” 벤은 마르쿠스 엄마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물론, 괜찮고 말고. 근데, 부모님이 너 여기 온 거 아시니?” 마르쿠스 엄마가 물었습니다. “네 여동생은 어떻게 하지?”

마르쿠스 엄마는 전화기를 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네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려라.”



첫 벨이 울리자 벤의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벤의 엄마는 금방 이웃으로부터 수도관 파열 소식을 듣고, 벤이 어디 있는지 걱정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벤의 엄마는 가족들이 연습했던 대로 벤에게 어디로 가 있어야 하는지, 비상용 백을 가지고 나왔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나 그만 가 봐야겠다.” 벤은 마르쿠스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비상용 백을 가지고 나와야 해.” 벤은 친구집을 나서서 곧바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벤은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와줄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메라씨나 다른 CERT 구조요원들을 계속 주시해서 보고 있었었습니다.

6페이지의 “벤은 자신의 아파트로 올라가기로 결정한다”로 가십시오.

벤은 잠깐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합니다.

잠시 후, 벤은 도로의 분주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지루해졌습니다. 그 장면은 이상하게도, 10초 정도 되는 똑같은 비디오 장면을 반복해서 계속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에서 돌아서면서, 벤은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를 들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벤은 현관문에서 큰 노크 소리가 들릴 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게임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으로 가서, 작은 구멍으로 보니 오메라씨가 밖에 와 있었습니다.

“금방 내려오겠다고 하지 않았어? 괜찮은 거니?” 오메라씨가 물었습니다. 오메라씨는 비디오 게임기를 보더니,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오메라씨는 벤이 비상용 백을 챙기고, 냉장고에서 비상시 카드를 확인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벤, 지금 비디오 게임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가족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오메라씨는 아래로 내려가며 말했고, 벤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10페이지의 “벤이 비상용 백을 가지고 가족 집합 장소로 간다”로 가십시오.

벤은 비상용 백을 가지고 가족 집합 장소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벤은 곧장 자기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에 비상 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밝은 빨간색의 비상용 백이 있습니다. 벤은 비디오 게임기도 가지고 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용 백에 무료함을 달래줄 몇 권의 만화책도 들어 있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방에서 나오면서, 벤은 작은 손전등을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비상 시 카드를 봤습니다.

“물론, 그렇지!” 벤은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거기가 우리 가족의 집합 장소야!”

비상용 백을 들고, 벤은 아파트 문을 잠그고,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정말 여기는 조용하군.” 누군가 벤 뒤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벤이 뒤돌아보니, 이웃에 사시는 호손 부인이 셧습니다.

“보호소로 가지나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호손 부인이 복도에서 말했습니다. “난 멜빈씨를 보살펴야 하거든.”

“멜빈씨요.” 벤이 따라 말했습니다. “고양이 말이군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면서, 벤은 “보호소에 고양이를 데리고 갈 수 있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캐리어 안에 넣기만 하면 돼요. 녹색 조끼를 입은 아저씨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밤 여기서 머물 수 없대요.”

벤은 도로로 다시 나와서, 곧바로 오메라씨에게 가서, 비상용 백을 보여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이기로 한 장소를 확인했니?”

“예, 그럼요. 초등학교요. 비상 시 카드에서 확인했어요. 여동생이 거기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가서 여동생을 만나거라. 몸 조심하고.” 오메라씨가 말했습니다.

벤은 헤드폰을 머리에 돌려 끼려다 말고 다시 내려 놓았습니다. “이런, 한가지 더,” 벤이 말했습니다. “아파트 3D에 제 이웃이 아직 거기에 있어요. 고양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누가 가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그러마. 말해줘서 고맙다.” 오메라씨가 말했습니다. “평화가 가득하길.”

벤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평화가 가득하라고? 정말 지금 딱 맞는 말이라고* 벤은 생각했습니다.

벤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벤은 부모님과 만나기로 합의한 장소로 가기로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벤은 다른 블록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봐, 벤! 이봐, 벤! 어디 가는 거야?”

벤은 다른 생각을 하느라, 친구인 아담과 마이크 D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이크 D는 벤과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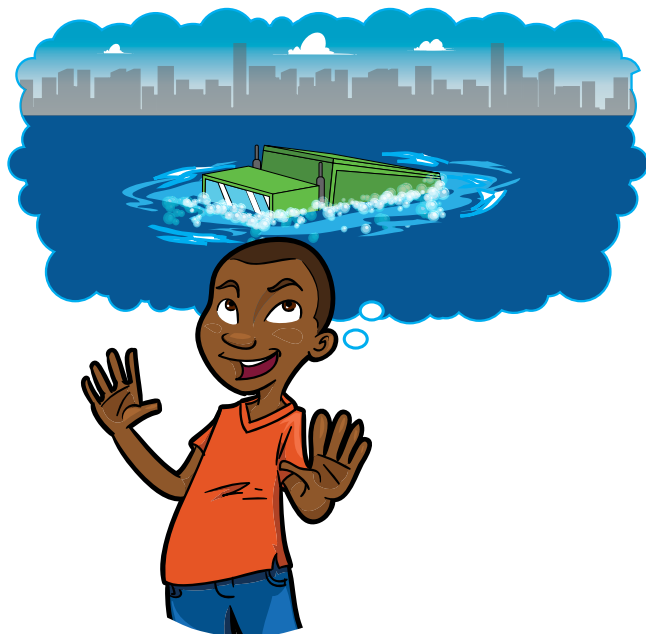
“요즘 어때, 벤?” 마이크 D가 물었습니다.

헤드폰을 빼면서, 벤이 “정말 이상한 오후였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너 수도관이 터졌다는 얘기 들었어?” 아담이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네가 살고 있는 곳 근처인 것 같은데, 벤! 도로에 5피트 정도 물이 차고, 청소차가 그 구멍으로 떨어졌대! 우리 지금 그거 보러 가는 길이야.”

“난 봤어. 우리 집 바로 앞이야.” 벤이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두 친구가 말했습니다.

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청소차가 빠진 건 아니야. 그냥 물이 많이 흘러 나왔을 뿐이야.”

“이런. 가서 확인해 보자.” 아담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가자, 벤. 우리도 보여줘.” 마이크 D가 맞장구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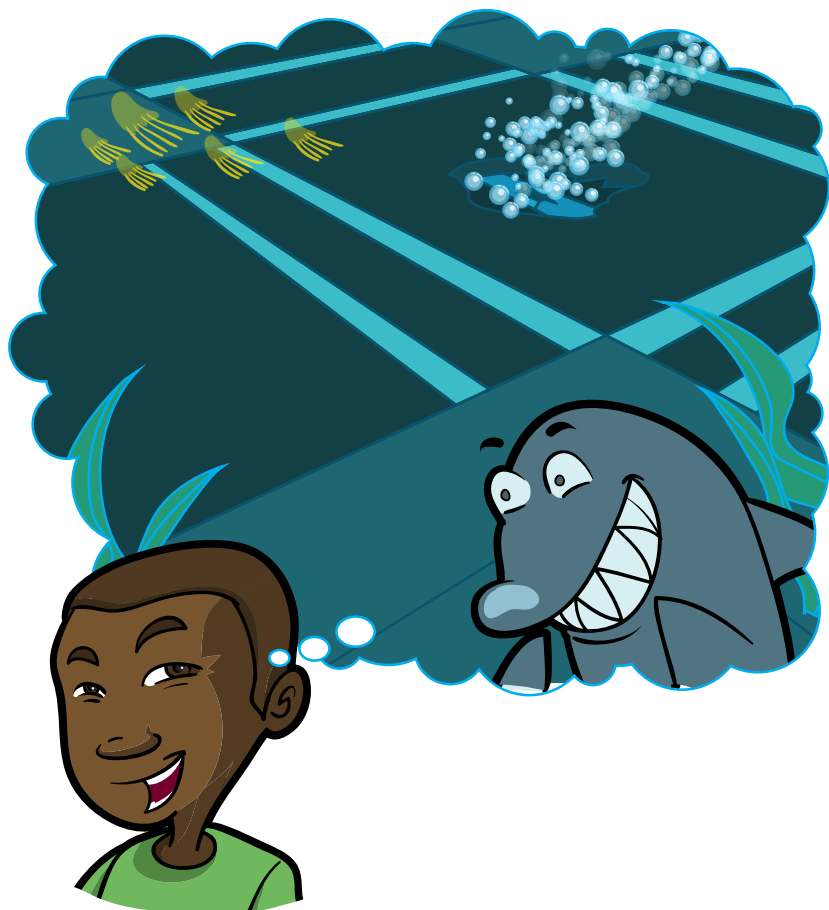
벤이 아담과 마이크 D를 데리고 가서 수도관이 파열된 곳을 보여주기로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13페이지로 가십시오.

벤이 집합 장소로 계속 가기로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15페이지로 가십시오.

벤은 아담과 마이크 D를 데리고 가서 수도관이 파열된 곳을 보여주기로 결정합니다.

“좋아.” 벤이 같이 가기로 합니다. “아주 잠깐이면 보고와도 될 거야.”

마이크 D와 아담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벤은 수도관 파열된 거 보는 게 왜 그리 신나는 일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도심에 상어가 헤엄쳐 다니고, 젤리피쉬가 퀸즈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가 난 블록으로 돌아가자, 벤은 아까 자신이 떠났을 때 상황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젤리피쉬는 없었습니다. 브로드웨이를 향해 가고 있는 상어도 없었습니다. 물도 이제 더 이상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D가 주차해 놓은 트럭 뒤에서 트럭으로 뛰어 올라서, 교차로를 가리켰습니다.

“뭘야? 도로에 구멍이 났잖아!” 마이크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오메라씨가 보도에 있는 안전 경계표시에서 길을 건너 왔습니다. 오메라씨는 마이크 D에게 트럭에서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벤을 바라보면서, “벤, 지금 뭔가 잇고 있는거 없니?”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이걸 보고 싶어 해서요.”

“이 물이 다 어디로 가나요?” 아담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작은 구멍에 청소차가 빠질 수가 있지요?”

오메라씨는 눈썹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청소차?”

“친구들이 파열 때문에 구멍이 생겨서 거기에 청소차가 빠졌다고 들었대요.” 벤이 말했습니다.

“내 생각엔, 벤은 지금 가야할 곳이 있을 텐데.” 오메라씨가 말했습니다.

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가야해요. 가자, 애들아.”

마이크 D는 여전히 가까이 가서 보고 싶다고 했지만, 세 명은 원래 그들이 처음 만났었던 곳으로 되돌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벤은 마침내 초등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 않아 가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눈은 빨갭게 되어 있었고,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벤의 엄마는 여동생을 안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의 얼굴 표정을 보니, 벤한테 화가 나 계셨습니다.

“어디에 있었니?” 아빠가 물었습니다.

“몹시 걱정했단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동생은 너무 겁에 질려 있었고. 우린 세워둔 가족 비상 계획이 있단다. 왜 그 계획을 따르지 않았니?”

벤은 다시 오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 너무 많은 결정들. 왜 나는 계획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을까? 부모님과 여동생을 보며, 벤은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획을 잘 따라 다시 하고 싶었습니다. 벤은 이제 다른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확실히 계획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벤은 집합 장소로 계속 가기로 결정합니다.

벤은 마이크 D와 아담과 함께 수도관이 터진 곳에 가면 정말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벤은 이미 거기에 갔다 왔고, 거기에 볼 게 있었나 생각했습니다. 갈라진 구멍에 청소차는 없었습니다.

“나는 안 갈래.” 벤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거기 볼 게 별로 없어.”

“네 마음대로 해.” 아담은 막은 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벤은 곧 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봉사자들이 현관에 여러 녹색 CERT 조끼를 입은 사람들과 경찰관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학교 직원이 벤을 알아보고,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여동생을 가리켰습니다.





여동생은 벤을 보고는 달려왔습니다. “들었어? 들었어? 오늘 밤 우리 학교에서 자야 한데!” 여동생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오, 정말?” 벤이 물었습니다.

“이리 와봐, 보여줄게. 체육관에 간이 침대가 준비되어 있잖아.”

벤이 웃었습니다. 벤이 정말로 밤을 보냈으면 하는 마지막 장소는 벤의 예전 학교였지만, 여동생이 여기서 지내는 것을 모험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니 기뻐합니다.

체육관을 본 후, 벤과 여동생은 밖으로 나가서 엄마와 아빠가 학교로 들어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동생은 부모님에게 뛰어가 안겼습니다.

“들었어요? 들었어요? 오늘 밤 우리 학교에서 자야 한데요!” 벤은 눈을 굴렸고, 부모님은 웃으셨습니다. 체육관에서 자는 것은 이상적이지 않았지만, 안전하기는 했습니다. 대체로,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쨌면 벤이 다음 창작 글짓기 소재로 삼아 이 이야기를 쓴다면, 구멍에 청소차 트럭이 빠지고, 상어가 헤엄쳐서 브로드웨이를 향해 가는 부분을 추가할 것입니다.